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정규예배 시 '생활 속 거리두기(1m)' 방침에 따라 본당 지정된 예배석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교회 안으로 들어오실 때, 꼭 새로 설치된 체온측정 및 자동 손 세정제 기구를 사용하시고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4. 이번 주 토요일(3/20) 청소담당은 카자흐스탄 목장(권용기 집사)입니다.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3/21) 주일간식담당은 에스더 목장(오효근 권사)에서 섬기겠습니다.
5. 교회 정규예배(새벽기도회, 수요일예배, 금요일기도회, 주일예배)가 자유롭게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새봄과 함께 예배 또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 부활주일을 앞두고 다가오는 3월 28일(주일) 오후 시간에 남·여선교회 주관으로 '봄맞이 대청소'를 합니다. 모두 함께 나오셔서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날짜	3월 14일	3월 21일	3월 28일	4월 4일
예배기도(2부)		신재준 집사	이정환 집사	추준형 집사	유종열 장로
예배기도(오후)		'코로나19'로 인해 없습니다.(추후 변경 가능)			
주일간식담당 (점심식사 No)		호산나목장 (강숙여 권사)	에스더목장 (오효근 권사)	양떼목장 (황희용 권사)	헝스바목장 (김금옥 권사)
토요일청소(고정)		우즈베키스탄목장 (첫째 주 토요일)	캄보디아목장 (둘째 주 토요일)	카자흐스탄목장 (셋째 주 토요일)	키르기스탄목장 (넷째 주 토요일)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2020년도 남·여 목장과 섬기는 목자들을 위해서
2. 수술 후, 자택에서 회복중인 신동기 집사님, 최순애 집사님의 쾌유를 위해서
3.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4.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에이미 양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십터(함안), 온누리비전교회(양구), 감동의 교회(원주) 사역지와 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드립니다.

HANEULMUN VISION MESSAGE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툼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섬기는이 ■ 부목사 : 김묘상 ■ 전도사 : 박일선 ■ 시무장로 : 유종열, 김윤식
■ 협동장로 : 신태식 ■ 반주자 : 신혜인, 허찬송 ■ 방송실 : 권다정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2536
(우)12192

http://www.haneulmun.com

예수 닮아

향기되어

감동주는

하늘문교회

2021년
3월 14일
07-11호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1부(오전 9:30), 2부(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서교독 교독문 15번(시편 27:1-6)	다같이
*경배찬송 44장(통 56장)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270장(통 214장)	다같이
대표기도	1부인도자, 2부신계준집사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마 11:28-30	인도자
자녀를 위한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말씀선포 '더 내려놓음'	허영진 목사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인도자
*결단송 620장(통 620장)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달의말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편 8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쉽니다.’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로마서 강해 허영진 목사
롬 8:31-39 '함께 하시는 하나님'(5)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올바른 과녁을 향한 기도'(138)

새벽기도회 새벽 5:30 <하늘문의 만나> 말씀묵상 허영진 목사
(월~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니다.◆

사순절에 부친다

기록문화 대표인 윤필교의 <내 인생의 퍼즐 한 조각>이란 글에 나오는 내용이다. “밤송이처럼 자꾸만 찢려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웬지 곱고 아름답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 하나님, 저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안에는 우연은 없단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는 밤송이 같은 사람도 있고, 꿀송이 같은 사람도 있다. 자꾸만 우려도 쏘물만 자꾸 나오는 사람도 있고, 늘 달콤한 멜로디처럼 단물이 스며 나오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나는 어떤가? 나는 단물만 나온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장담할 수가 없다. 따라서 나는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삶에 주로 단물이 되는 이가 누구인지 자못 궁금해진다.

물론 어머니처럼 언제나 단물로 우리를 대해주고, 그래서 그 단맛의 배인 사랑 때문에 단맛 흥내 좀 내는 것처럼 살기도 한다. 하지만 여차하면 쓴맛이 쓸개처럼 터져 나올 때마다 곤혹스럽다. 그래서 도피처로 피하곤 한다. 그 한 예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도망가서 용서를 구하고, 십자가 앞에서 완고한 자아가 처리된 삶으로 살아 보려는 애씀이 그 나름은 성화의 삶이 아닐까 싶다. 그러면 그럴수록 조금씩 단물의 맛으로 변해가는 사람일 게다. 그래서 연속된 실수투성이의 삶 속에서 나오는 한숨과 탄식이 기도로 변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기 원하는 간구가 성도의 뉘이지 싶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경험하는 단물의 근원은 어디일까? 마라의 쓴물을 경험할 때,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분이 누구일까? 삶의 여정을 사막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으로 그리면 너무 염세주의적인 모습으로 비취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네 삶 가운데 만나고 싶지 않은 만남, 곧 쓴 만남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런 만남과 쓴맛이 오히려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절규로 인해 쓴물을 단물로 경험케 하는 아이러니가 있다. 왜냐하면 그곳에 주님의 간섭이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는 우연은 없기 때문이다. 사순절이 여정에서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생각하며 단물이 되어보자.

Written by 허영진